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17일까지 읍·면 현황 청취 나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읍·면별 주요 현안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1일 동진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관내 13개 읍·면을 방문해 읍·면 현황 청취를 하고 있다.

이번 읍·면 현황 청취는 각 읍·면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래 의장은 “읍·면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기관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지역의 현안과 여건을 정확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현황 청취를 통해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통합돌봄사업 지역특화서비스 본격화

고창군이 '통합돌봄지원사업(3월 27일 전면시행)' 일정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 지역특화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시행한다. 퇴원환자를 통합돌봄 체계로 연계 시 병원에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달중 관내 병원들과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주거환경 개선과 병원 동행, 목욕 및 이모용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는 세부 계획 수립을 마치고 4월중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고창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인 '통합돌봄 서포터즈'와 연계한 이불 세탁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위생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벚꽃축제' 내달 3일 개막

정승환·민경훈 등 유명가수 출연·40여개 부스 운영... 문화공연·먹거리 풍성



정읍시가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지역 대표 봄 축제 '2026 정읍 벚꽃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정읍시가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지역 대표 봄 축제 '2026 정읍 벚꽃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읍과 봄'이라는 핵심 구호(슬로건) 아래 '벚꽃을 봄, 문화를 봄, 내일을 봄'이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아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는 풍성한 무대 공연 프로그램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4월 3일 첫날에는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댄스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정승환, 김용임, 라이썬, 카르ديو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선율로 봄밤을 밝힌다.

이어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와 함께 민경훈, 정승, 아리안, 예린, 강예연, 한강 등 세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라인업이 상춘객들의 흥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는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4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된다. 기존의 간식·디저트, 푸드

트럭 외에도 지역 베이커리가 직접 참여하는 특화 빵 부스가 별도로 마련돼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한 안전 홍보, 반려견 캠페인 부스와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적절히 배치해 아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벚꽃 포토존과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 상시 운영되며 정읍천 벚꽃길 주변으로는 야간 경관 조명을 집중 설치해 밤에도 조명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벚꽃길을 거닐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탄소 중립·해양 생태계 보전 '한마음 한뜻'

포스코이엔씨·부안해경·월드비전과 갯벌 생태계 복원 염생식물 파종·해양 정화활동 구슬땀



부안군은 포스코이엔씨, 부안해양경찰서, 월드비전 등과 함께 부안 줄포만 갯벌에서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염생식물 종자 파종과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포스코이엔씨, 부안해양경찰서, 월드비전 등과 함께 부안 줄포만 갯벌에서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염생식물 종자 파종과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갯벌 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Hi Blue Carb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염생식물, 갯벌 등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탄소 흡수 능력과 장기간 탄소 저장이 가능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군과 부안해경, 포스코이엔씨, 월드비전 임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토종 염생식물인 칠면초 종자 약 50kg을 파종했다.

참가자들은 파종에 앞서 갯벌 일대에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정화활동을 함께 실시하며 깨끗한 갯벌 환경 조성과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했다. 'Hi Blue Carb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포만 갯벌 복원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칠면초, 함초, 해홍 등 다양한 토종 염생식물 종자를 파종하며 블루카본 기반 갯벌 생태계 복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염생식물 군락을 확대 조성하고 갯벌 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줄포만 갯벌은 국제적으로 보

/부안=김석진기자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착공식 성료

대일변산관광개발, 2027년까지 18홀 규모 대중제 골프장 등 조성



부안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주)은 12일 부안영산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호석 대일개발그룹 회장,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각계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으며 이달 골프장과 호텔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18홀 규모의 골프장

및 67실의 호텔 조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격포 지역을 중심으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 '가속도'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 개최

정읍시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과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12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맞춤형 청렴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존 정책들을 재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갈 중점 과제로 반부패 시스템 정비, 공직 내부 청렴 문화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4대 분야를 선정

했다. 먼저 반부패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주관의 추진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부패영향평가와 제도 개선 이행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다질 계획이다. 전 직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강화와 청렴 토크콘서트, 공직기강 감찰 활동 등을 통해 공직 사회 내부 청렴 의식도 끌어올린다.

시민 참여와 취약 분야 감지도 대폭 확대한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청렴원정대'를 신규로 운영하고, 건설 관련 단체와의 정기 간담회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향사랑기금으로 공유어린이집 지원

정읍시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어린이집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45개 어린이집을 7개 권역으로 묶고, 이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집의 규모와 여건에 따른 보육 격차를 보완하고 모든 원아에게 균형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권역별로

연간 600만원씩, 총 4200만원 규모다. 각 권역은 상·하반기에 걸쳐 총 400만원의 예산으로 탈기 수학 체험, 농장 견학, 창의 오감 체험 놀이 등 다채로운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부모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다채로운 경험을,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정서적 지원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체적인 보육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